

“오백나한 목판각화로 경제난 극복 발원해요”

서울 손모음선원장 해천스님 '판각삼매'

IMF경제난극복,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오백나한 번상도 목판각화 불사가 한 스님의 지극한 원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중구동 손모음선원장 해천스님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기인 요즈음 내내 풍고침락으로 어려움이 극에 달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내우의환을 물리치고자 한 고려시대의 단합된 불심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직계제자로서 열심히 수행정진해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또 부처님 열반후에는 부처님의 45년 가르침을 결집한 오백나한들을 번상도로 판각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과 오백나한님들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가로 40cm 세로 70cm의 목판 양면에 나한을 각 한명씩 새기는 이 판각불사는 현재 16번째 나한인 광명존자가 판각중에 있다. 나한의

모습은 수락산 학리사 오백나한을 중심으로 여러 나한을 모티브로 했다. 스님은 나한 마다의 독특한 개성과 뚜렷한 수행정진을 판각에 나타내기 위해 얼굴 표정과 의습의 선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스님이 독보적으로 개척한 양음판화 기법을 사용한다.

학림사 나한등 모본 양음판화 기법 사용

완성된 판각을 판화로 찍어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경제난극복과 통일 안 무념무상으로 판각삼매에 몰입하고 끝난면 곧이어 새벽예불을 봉행하고 1시간동안 참선에 든다. 나한 한판을 완성하는 데는 대략 5일

정도 걸리는데 오는 2000년을 그 회향으로 잡고 있다. 스님이 본격적으로 오백나한 판각불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초. 지난해 관세음보살 33응신도를 하나 하나 새기면서 오백나한도를 구상 했었고 지난해 말 IMF판화로 인해 일거에 혼란과 방황에 시달리게 된 우리 민족을 위해 오백나한번상도 사경기도를 해야겠다는 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14살때 공주 길상사서 출가한 스님은 목각에 천부적인 재주를 나타내 그동안 틈틈이 제작한 목판화도 개인전을 여러차례 가진 바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번상도가 조선후기로 오면서 맥이 거의 끊겨 안타깝다는 해천스님은 사경기도를 수행방편으로 택해 널리 중생포교에 앞장서겠다는 원력을 보인다. “이곳에서는 혼자서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작업장이 좁지만 좀더 넓은 곳으로 나간다면 불자들이 나



◇IMF 경제난극복과 남북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오백나한 번상도 목판각화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천스님.

무를 켜고 사포질을 하고 또 판을 짜고 하는 옆에서 판각을 하는, 그 옛날 고려때의 대장도감에서처럼 불사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오백나한 목판각화 불사가 제2의 판각대장경 불사가 되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경숙 기자

화엄사 본말사 '불화보고서' 나왔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본·말사에 소장돼 있는 불화(17세기~광복 이전)에 대한 첫 종합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전국 성보실태조사 일환으로 발간된 '전국 사찰소장 불화조사보고서-화엄사 본·말사편'은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박하)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 까지 화엄사 본·말사 43개 사찰의 불화 80점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 주요사찰의 연혁에서 불화의 현황과 성격, 화기(畫記), 도판 등을 실고 있으며 불화의 명칭, 제작연대, 재질, 크기, 소장처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사찰별·유형별 불화현황을 살펴보면, 화엄사 24점, 흥국사 19점, 천은사 12점 등이며, 개별 4점, 여래후불탱 13점, 신중탱 10점 등이다.

이번에 조사된 도록은 <한국의 불화>시리즈 11-화엄사 본·말사편으로 올해안으로 발간된다.

문화상품권 내달판매

영화 공연 관람과 음반구입 등 문화생활에 현금대신 쓸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 11일 확정되어 3월 1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1장의 가격은 5천원, 전국의 극장과 공연장 등 4천7백여 가맹점에서 살 수 있다.

대장경과 비디오아트 '만남'

해인사 성보박물관 백남준작품 내년초 전시 과거-현재 동양-서양 정신교류 상징적 표현

기로 했다. 백남준씨의 작품은 판대대장경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첨단예술로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정신이 교류한다는 상징적인 뜻을 담게된다. 대장경에 서려있는 호국정신과 제작과정, 전복 탕화의 모습 등이 레이저 빛과 비디오 홀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된다.

88년 서울올림픽때 위성소 '세계와 손잡고'를 15개국에 방영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한 바

있는 백남준씨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며 해인사와 성보전시관의 설계를 맡은 아키타(대표 김석철·관련인터뷰 4면)의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다.

2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미국 마이애미에서 투병중인 백씨는 1993년 독일의 저명한 <Capital>지에 의해 세계적인 미술가 1백명중 5위에 선정되었을 만

큼 20세기 미술의 새로운 장르 창시자로 여겨지고 있다. 백남준씨는 전시관 공사가 마무리되는 을 가을쯤 해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작품제작에 후원을 불사를 예정이다.

해인사는 창건 1200주년이 되는 2002년을 기해 舊 해인초등학교 2만여평 부지에 성보유물전시관, 대장경연구소, 만불전, 노천석, 불교회관 등이 포함되는 해인불교단지를 건립기로 했으며 지난해 5월 착공한 성보전시관은 그 첫 사업에 해당한다.

이윤호 기자



◇12일 열린 불교주간설립기념 불교단체 초청 기념식 후 불자들이 중국문화대전 티벳관을 둘러보고 있다.

중국문화대전

한 중 수교 5주년을 기념하여 3월 29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있는 중국문화대전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티벳문화와 한눈에 볼 수 있는 티벳이 따로 마련돼 있는 등 문화대국 중국의 광범위한 문물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본지 159호 7면 기사 참조).

중국문화대전을 통해 한중문화의 본격적이고 심도깊은 교류를 위한 불교계의 지원을 위한 범불교후원회가 1월 21일 발족되고 이와 함께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동안 문화대전 불교

문화의 위대함 '감상' 16-22일 불교주간

주간이 설정,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범불교후원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광불협, 경불련, 불교시민단체협의회 등 불교단체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 두고 있다.

한편 중국문화대전 불교주간 기간에는 신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불자에 한해 입장료 10% 할인혜택을 주고 20인이상 단체관람시에는 2일전 통고하면 안내요원도 지원해 준다. (02)723-6258

불심시심 <117>

굴이 먼 곳에 노닐어야 하나

- 祇園西麓起高樓 (기원서록기고루) 기원의 서쪽 산록에 높이 솟은 누대
- 樓冠東南七十州 (루관동남칠십주) 동남의 칠십 고을에 가장 으뜸이라
- 松檜蒼蒼煙雨潤 (송취청청연우潤) 소나무 회나무 비 뒤에 윤기 들고
- 巖巒碧影帶嵐浮 (암만벽영대담부) 바위 산 푸른 기암 아지랑이가 둘러 뜨다
- 燈光照塔三更曉 (등광조탑삼경효) 탑을 밝히는 달빛은 삼경의 새벽이고
- 水氣侵軒五月秋 (수기침헌오월추) 마루에 드는 물기운은 오월인데 가을
- 朝露露瀼幽興發 (조로루탕유흥發) 오르내리는 아침 저녁 그윽한 흥이니
- 不須并掃遠方遊 (不須并掃遠方遊) 바릿대 지팡이로 먼 길이 꼭 필요한가.

이 시도 괄하대의 시이다. '운봉사 산영루의 현관 시를 보고(次雲峰寺山影樓板上韻)' 지은 시이다. 그저 광범한 산수 자연의 시이지만, 대사가 산에 이끌리는 이유를 알게 한다.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이 자연이 바로 신선인데, 다시 어느 곳을 찾겠느냐는 것이다. 이 고을이 동남방에서는 으뜸가는 고을인데, 거기에서 이 산사의 누대가 높이 솟았으니 으뜸에서 으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의 기구이니, 은연중에 끝구에서 신선을 찾아 멀리 노닐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을 암시하고 있다.

소나무나 회나무는 교목이다. 하늘에 닿을듯 솟은 그 위용은 다른 어느 수목의 푸르름으로도 견줄 수가 없다. 여기에 비를 맞았으니 그 윤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온 산의 푸른 그림자가 아지랑이처럼

이중찬 <동국대 교수>

“왜 거기에 장승이 있나”

민속박물관 '경남지방 장승·숫대...' 발간



◇창녕 관룡사 석장승. 사찰 입구에 세워져 사찰의 경계나 이정표 구실을 한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조유전)이 사찰이나 마을 입구에서 주로 만나는 장승, 숫대 등을 소개한 <경남지방 장승·숫대산양(附 제주의 석상)>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95년 9월에서 97년 2월까지 약 1년6개월간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학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방에 전해지고 있는 장승은 총 59기. 그 중에는 창녕 관룡사 석장승, 함양 벽송사 목장승, 하동 쌍계사 목장승 등 사찰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낯익은 장승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통영시와 거제시 일원은 타 지역에 비해 사찰장승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사대상 마을 35개중 9개처에 19기가 있었거나 현존하고 있다. 또 사찰장승의 명문에는 가람외호선신(伽藍外護善神), 호법대신(護法大神) 등이 새겨져 있어 사찰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미륵이나 국장생석표 등도 몇몇 사례가 확인됐는데, 특히 통도사 국장생석표는 사찰입구에 세워져 있으면서 사찰의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방 여시아문 2월 특선 - 경전의 지혜로 겨울나기

책방 여시아문 통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 팩스:(02)737-0696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올 2월,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경전들만을 간추려 특판전을 열고자 합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범구경 등 불자들이라면 누구나라도 한번쯤 읽어 보아야 할 경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서운 날새만큼이나 끔찍 열어 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툇다의 지혜를 빌어 이겨 가지 않겠습니다.

문의 전화:(02)737-0695, 732-1521

-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 5500
- 금강경 대강좌 청담/ 보성문화사 / 20000
- 금강경 대강좌 이계열/ 여시아문 / 8000
- 금강경 오가해 무비/ 불광 / 15000
- 금강경 이야기 법륜/ 정도 / 상 9500 하 6200
- 금강반야바라밀경 원운/ 보림각 / 5000
- 금강반야바라밀경 혜안/ 불서보급사 / 4500
- 능엄경 불전간행회, 김두재 / 민족사 / 9500
- 능엄경 강좌 1, 2, 3 동국역경원 / 각 15,000원
- 능엄경 주해 운허/ 동국역경원 / 10000
- 대승입문가경 김재근 / 명문당 / 7000
- 묘법연화경 고산 / 반야샘 / 15000
- 반야심경 범성 / 큰수레 / 8000
- 반야심경 승원 / 상아 / 6000
- 반야심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4000
- 반야심경 청담 / 보성문화사 / 9000
- 반야심경 강의 한정섭 / 불교대학교 교재(권) / 6000
-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 / 정도 / 7000

- 범구경 김달진 / 원암사 / 8000
- 범구경 불전간행회, 석지현 / 민족사 / 6500
- 범구경의 세계 이원섭 / 운주사 / 7000
- 범화경 운허 / 동국역경원 / 7000
- 범화경 이원섭 / 삼중당 / 6000
- 보현행원품 한정섭 / 불교통신교육원 / 6000
-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 불광 / 4000
- 보현행원품 강의 무비 / 민족사 / 6500
- 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대한불교조계종 / 12000
- 아함경1, 2 불전간행회, 문연 / 민족사 / 각 7500, 7000
- 여래심지의 요문(대승입문가경) 박건주 / 능가산방 / 11000
- 원각경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15000
- 원각경 관심석 범성 / 큰수레 / 9000
- 원각경 주해 원운 / 동국역경원 / 3000
- 유마경 불전간행회, 박용길 / 민족사 / 6500
- 유마경 안진호 / 범문사 / 25000
- 유마경 장순용 / 시공사 / 12000

- 유마힐소설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8000
- 육조단경 광덕(역) / 불광 / 12000
-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양기봉(역) / 김영사 / 7000
- 육조단경 심재원 / 보림각 / 15000
- 육조법도단경 해의 범성 / 큰수레 / 12000
- 천수경 무비 / 불일 / 4500
- 천수경 강해 범성 / 큰수레 / 6000
- 천수경 이야기 김효성 / 민족사 / 4500
- 초발심자경문 심재원 / 보성문화사 / 7000
- 초발심자경문 탄허 / 불서보급사 / 3500
- 치문경춘 이일영 / 보림각 / 15000
- 치문경춘 이일영 / 수덕사승가대학 / 15000
- 한글 세대를 위한 범화경 상, 하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각 15000
- 한글 세대를 위한 범구경 최동호, 김달진 / 세계사 / 12000
- 한글 아함경 교익진 / 동국대학교 출판부 / 12000
- 화엄경 범성 / 동국역경원 / 7000

- 화엄경 불전간행회, 김지현 / 민족사 / 12000
- 화엄경 강의 무비 / 불광 / 9000

성철 스님 법어집

- 백일 법문 상·하 상 6500원 하 5500원
- 선문정로 평석 6000원
-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 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 영원한 자유 6000원
- 자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 선문정로 4000원
- 본지풍광 7000원
-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성철 스님 법어집 1집(11권 W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비디오(“스님, 성철 큰스님”W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

